2022.6.20.

국회미래연구원 | 국제전략 Foresight | 9호

‘그린 데탕트’: 환경협력을 통한 평화구축의 미래 탐색

김태경 거버넌스그룹 부연구위원

국회미래연구원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국제전략
Foresight

2022. 6. 20

Vol. 09

ISSN	2734-0686
발행일	2022년 6월 20일
발행인	김현곤
발행처	국회미래연구원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222호 Tel 02-786-2190 Fax 02-786-3977

「국제전략 Fore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이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수시 발행하는 브리프형 심층 보고서로서, 미래연구원 내·외부 전문가가 주요 글로벌 이슈에 대해 미래를 전망하고 국가차원의 국제전략을 제시합니다.

국제전략
Foresight

Contents

‘그린 데탕트’: 환경협력을 통한 평화구축의 미래 탐색

거버넌스그룹 부연구위원 김태경

요약
Ⅰ. ‘그린 데탕트’: 지속가능한 환경과 지속가능한 평화를 연결하는 문제
Ⅱ. ‘그린 데탕트’의 이론적 지형 탐색: 환경-평화 연계
1. 환경안보: 비전통안보 이슈로서 환경의 안보화
2. 환경협력을 통한 평화 만들기, 아래로부터의 평화 만들기
Ⅲ. 한반도 ‘그린 데탕트’를 향하여
참고문헌

요 약

지속가능한 환경과 지속가능한 평화를 연결할 수 있을까? 있다면 어떤 조건에서, 어떤 과정, 순서로 연결이 가능하고 어떤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이 글은 5월 출범한 윤석열 행정부의 한반도 평화 공약으로 제시된 '그린 데탕트' 구상을 미래에 실현가능한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그린'을 통한 '데탕트'라는 정책 경로와 관련해 환경과 평화의 문제를 연계시키는 방식, 그 다양한 가능성을 우선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한다. 이에 따라 이 글은 환경과 평화의 연계에 대한 기존의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면서 환경협력을 통한 평화구축이라는 '그린 데탕트'를 실현가능한 미래 비전으로 만들 수 있기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를 확인한다.

'그린 데탕트' 구상은 신정부의 공약 이전에 과거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제기된 바 있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남북 산림협력, 기후변화 공동대응 노력에서 유사한 정책적 인식이 존재했다. 이러한 구상은 우선 기존의 국가 중심적, 군사 중심적 국제정치·안보연구에서 벗어나 '비전통안보' 이슈(전통적 안보개념인 군사적 폭력, 갈등이 아닌 환경, 보건, 식량 등 영역을 포괄)에 새롭게 관심을 가진다는 특징이 있다. 동시에 '그린'을 통한 '데탕트'라는 경로의 구상과 관련해, 기존의 비전통안보 이슈의 협력으로부터 전통안보 이슈의 협력으로 진전, 이슈 영역을 뛰어넘는 '확산'(spillover)을 전제한다는 중요한 특징을 가진다.

이 글은 이러한 '그린 데탕트'의 성격과 관련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함으로써 '그린 데탕트'가 실현가능한 정책비전으로 자리잡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논리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가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환경협력을 뜻하는 '그린'으로부터 '데탕트', 냉전적 갈등, 분단의 구조적 전환을 통한 평화구축으로 가는 과정에 어떤 이론적 개념들이 존재하고, 환경협력을 통한 평화구축의 실현가능한 경로에 대해 어떤 전제조건, 단계, 메커니즘이 필요한지 탐색한다.

환경과 평화를 연계하는 이론적 개념으로는 크게 '환경안보', '환경적 평화구축'을 살핀다. 먼저 환경안보 개념의 범위를 밝히고 환경안보의 진화과정에서 국가안보의 하위 범주로 환경 이슈를 포괄하는 실용적 흐름과 (안보의 대상으로 국가가 아닌 인간을 강조하는) 인간안보적 접근을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관심과 결합하는 흐름 사이에 긴장이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다음으로 최근 평화구축 연구에서 주목받는 '환경적 평화구축' 이론, 평화구축의 '지역적', '공간적 전회' 이론을 검토함으로써 환경이라는 비정치적 영역으로부터 평화구축이라는 군사 · 정치적 영역으로 협력을 확산하는 (비전통적) 경로들의 전제조건, 메커니즘, 결과를 제시하고 '아래로부터의' 평화구축 담론 ·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이 글은 한반도 ‘그린 데탕트’ 구상을 위한 정책적 방향설정에 관련해 다음을 제언했다.

첫째, 남북한은 공동의 환경적 도전에 대한 협력을 위해 현재의 정치 · 군사 · 경제 · 사회적 경계를 넘어서는 관계적 ‘전환’을 우선 시도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의 남북관계 교착 국면과 같은 갈등적 맥락에서는 공동의 환경적 문제에 대한 낮은 단계의 기술적 협력부터 실행해 나가기 위해 최소한의 일정한 ‘접촉’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어느 한 편이든 선제적 양보로 보이는 행위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둘째, 비정치적 환경 영역으로부터 정치 · 군사적 영역으로의 협력 확산을 목표하는 환경적 평화구축의 본질적 성격상 ‘하위 정치’의 일상적 관심, 지역 사회 공동체의 담론 · 실천에 기반한 ‘아래로부터의’ 평화구축 접근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DMZ 접경지역 등 환경 의제에 집중가능한 특정 지대를 설정하는 한편 지역·시민사회 등 다양한 행위자들의 경험, 담론을 활용해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민주적 숙의, 협의주의적 과정을 강화해야 한다.

Ⅰ. '그린 데탕트': 지속가능한 환경과 지속가능한 평화를 연결하는 문제

◦ 포스트 팬데믹 국제정치 환경은 감염병, 재해재난, 기후변화 등 기존의 전통안보, 평화구축 연구에서 주변화된 새로운 안보, 평화 이슈를 포괄하는 개념의 재정의 과정을 촉진함

- 탈냉전 이후 국제정치학계는 국가 행위자 중심의 기존 안보연구로부터 개별 인간, 공동체 수준의 안보, 평화구축에 대한 대안적 접근으로 안보 주체의 범위를 확장해왔음

- 미소 양극체제의 붕괴, 유럽의 탈냉전 과정은 기존의 국가 중심의 정치 · 군사적 경쟁, 안보대결로부터 시민사회의 평화 담론 · 실천, 민주적 변화 등에 기반한 협력안보, 공동안보와 같은 안보 패러다임의 변화를 수반함[1]

- 안보 이슈영역과 관련해서도 전통안보 관점의 재래식 및 핵군비통제, 군사적 폭력, 분쟁방지뿐 아니라 테러리즘, 난민, 자연재해, 보건의료, 환경보호, 기후변화 등 비전통안보 의제를 포함하는 포괄안보적 관점이 확대됨[2]

- 최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전통안보 개념의 중요성이 재강화되는 측면이 있으나 팬데믹, 기후위기와 같은 지구적 차원의 위험 증대, 안보위험에 대한 사회적 구성에서 인터넷, 소셜미디어 등 디지털 미디어의 역할 등을 고려할 때 비전통안보 이슈, 국가가 아닌 개별 인간, 공동체 관점의 대안적 접근의 중요성은 지속될 것

◦ 한반도 평화구축 환경 조성과 관련해서도 최근 비전통안보, 신흥안보 협력에 대한 학술적, 정책적 논의가 팽창되어옴

-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과정의 교착과 더불어, 식량안보, 보건안보, 환경협력,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비전통안보 영역의 다자적 협력의 경로가 군사정치적 긴장에 가로막힌 평화과정의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음

-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는 핵무장을 기도하는 북한에 대한 규범적 비판 기조를 유지하고 경협 등 기존의 인적, 경제사회적 교류협력에 소극적인 한편, 환경협력, 기후변화 공동대응을 바탕으로 한 비전통안보 의제 관련 정책구상을 전개한 바 있음

1 UNDP 1994; Acharya 2001; Kaldor 2007; 이혜정 · 박지범 2013; 민병원 2012; 이신화 2006.

2 김상배 2016; 김상배 · 신범식 2017; 김상배 · 신범식 2018.

- 5월 출범한 윤석열 신정부는 대선 공약에서 한반도 안보 · 평화 관련 대선 공약에서 이러한 과거 정부들을 계승해 '그린 데탕트' 공약을 제시함[3]

-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북한은 대외 · 대남 메시지에서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요구하는 한편 보건 · 방역협력 등 한국의 대북 제안들을 비본질적 이슈라 비판, 적대행위 중단 등을 강조하며 군사 · 정치적 문제 해결의 선차성을 주장함

- 그러나 김정은 정권은 출범 초기부터 기상 예 · 경보 시스템 확충, 재해재난 예방, 대응 및 복구, 산림협력, 기후변화 대응 관련 국토관리정책에 국가적 관심을 쏟으며 환경, 건강, 식량안보 등 비전통안보 의제와 관련된 국제사회와의 협력에 대한 의지, 공약을 꾸준히 보여옴

  * 김정은 정권은 2021년 7월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이행 관련 자발적국가검토(Voluntary National Review) 보고서를 제출하고 환경보호, 기후변화 대응, 재난위험경감(DRR) 관련 장기적 국가계획을 수립, 공표함

  * 유엔 SDGs, 재난위험경감 관련 다양한 다자적 회의체에 참여하는 한편,[4] 2019년 기후변화 대응 역량강화를 위해 유엔 산하 녹색기후기금(Global Climate Fund)에 금융적 지원을 신청하고 752,090달러 규모 지원을 승인받는 등 적극적 노력을 전개[5]

- 한편 2022년 5월 12일 이후 코로나변이바이러스 확산을 외부공개한 북한의 상황은 2020년 1월 말 국가적 봉쇄정책, 중앙집권적 비상방역체계 가동에도 불구하고 취약한 보건의료 인프라, 의약품 공급상 결핍으로 심각한 우려를 제기

  * 북한 보도에 따르면 6월 14일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누적 발열 환자는 450만여 명, 사망자 72명으로 집계[6]

  * 연령별 사망자 통계는 5월 16일을 마지막으로 공개되지 않고 있는데, 당시 사망자 56명 중 10살 미만은 9명(16.1%), 11-20살은 8명(14.3%)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높은 어린이 사망자 수에 대한 우려가 존재[7]

- 향후 출현가능하고 심화될 신종 · 변종 감염병, 기후위기 등을 고려할 때 한반도 권역, 동아시아 지역 차원에서 재해재난, 환경 등 비전통적 안보이슈에 대한 준비 대응은 지속가능한 평화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로 부상할 것

3 나용우 2022.
4 김태균 2020a; 최규빈 2020.
5 Green Climate Fund 2019; 김태경 2021; Cho and Kim 2021; Song 2015.
6 YTN 2022.
7 MBC통일방송연구소 2022.

Ⅱ. '그린 데탕트'의 이론적 지형 탐색: 환경-평화 연계

◦ 식량, 보건, 방역, 환경 등 비전통안보 협력과 평화구축의 연계에 대한 국내 기존논의는 기본적으로 정책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어 가능한 여러 제언들을 제공하는 반면, 광범하고 풍부한 이론적 논쟁의 맥락, 고려가능한 다양한 사례 및 향후 방향성들을 고찰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존재

- 학계에서는 국제개발협력 관점에서 평화구축과 인도지원 및 개발협력 간 상호연계를 탐색하면서 이를 남북 협력 및 평화구축에 적용하거나, 사회-경제-환경 영역을 아우르는 지속가능발전의 맥락에서 한반도 협력, 통합을 제안하는 논의들을 발전시켜옴[8]

- 탈냉전 인간안보, 비전통안보에 대한 국제정치학계의 관심은 국제 테러리즘, 이민, 재해재난, 기후변화, 인수공통감염병 등 새로운 위험에 대한 '안보화'(securitization) 과정, 기존 안보 개념의 재구성 작업을 동반함[9]

- 통일연구원은 2000년대부터 인권의 관점을 도입한 정책연구 선상에서 최근 개발-평화 연계 및 인도-발전-평화 연계(Humanitarian-Development-Peace Nexus, HDP Nexus) 정책연구, 재해재난 정책연구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10]

  * 북한인권백서의 꾸준한 발간과 함께 발전권, 평화권 등 확장된 '제3세대' 인권의 맥락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 · 개발협력, 한반도 평화구축의 총체적 접근을 추구하는 정책연구 축적

-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국내 신안보 정책연구를 주도하면서 국제 · 역내 · 한반도 신안보 환경 진단, 신안보 협력 방향 및 정책제언을 적극적으로 진행[11]

  * 신안보 이슈 관련 북한의 인식 및 최근 동향에 대한 파악을 주기적으로 추적하고 있으며 신안보포럼, 신안보리뷰 등을 지속하는 등 국가안보의 주요 이슈로 신안보 영역을 포괄함

-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그린 데탕트'에 대한 초창기 작업 뿐 아니라 재해재난, 환경보호 관련 남북 협력에 대한 다양한 정책연구를 수행해옴[12]

8 문경연 2012; 박지연 외 2016; 김태균 2017; 문경연 외 2018; 김태균 2019; 김태균 2020a; 김태균 2020b; 손혁상 · 김선주 2019; 박지연 · 손혁상 2020; 문경연 외 2021; 문경연 · 정구연 2018; 이대훈 외 2020; 김기섭 외 2020.

9 김상배 2016; 김상배 · 신범식 2017; 김상배 · 신범식 2018; 윤정현 2019; 윤정현 2020; 김상배 2020.

10 도경옥 외 2016; 도경옥 외 2017; 한동호 외 2018; 김수경 외 2019; 이규창 외 2020a; 오경섭 외 2021; 인도협력연구실 2019; 홍석훈 외 2019; 홍석훈 외 2020; 이규창 외 2020b; 황수환 외 2021; 임예준 · 이규창 2017; 나용우 외 2021; 김형수 외 2021; 이재영 외 2021.

11 김호홍 2018; 김호홍 · 오일석 2019; 김호홍 · 김일기 2020; 박보라 2018; 박보라 2019; 김경숙 · 박보라 2021; 오일석 2020; 오일석 · 장세호 2020.

12 강택구 외 2016; 강택구 외 2021; 명수정 외 2013; 명수정 2017.

- '그린 데탕트' 구상으로 과거 정부 및 신정부에서 제기된 논의들은 기존의 한반도 평화구축의 우선순위, 순서, 경로 등과는 차별화된 방식에 대한 아이디어, 해외사례와 관련해 고려가능한 정책제언을 중심으로 구성[13]

  * 구체적으로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임진강, 한강 유역 등 공동관리, 산림녹화, 산불공동방재사업 등 다양한 정책옵션들이 고려되었으나 북미, 남북관계 변화, 평화과정의 진퇴와 맞물려 실질적 진전을 보지는 못함

  * △'그린' 환경협력을 통한 '데탕트'의 조성이라는 경로 자체에 내재한 장기적 안목, △유럽과 달리 한반도, 동아시아 차원의 공동의 위임적 제도(delegated institutions) 미비 등 실현을 위한 전제조건, 과정에 대한 비판적 분석들이 존재[14]

- 본 연구는 한반도의 미래비전으로서 '그린 데탕트' 구상을 실현가능한 방식으로 구체화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비전통안보, 평화구축과 관련된 풍부하고 광범한 이론적 지형에 대한 '지도 그리기'(mapping)를 통해 '그린 데탕트'의 추상적 공약이 환경-평화 연계 논의들에서 어디에 위치가능한지 그 경계를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봄

  * '그린 데탕트' 관련 다양한 세부 정책옵션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지만 아직까지 '그린 데탕트' 개념에 대한 면밀한 파악, 이론적 탐색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작업을 통해 '그린 데탕트' 구상의 체계적이고 확장가능한 실현범위, 방향을 밝히는 것이 필요

◦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그린 데탕트' 구상이 중장기적 한반도 통합의 미래의 관점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전제되어야 하는 작업으로서 '그린 데탕트'의 개념 정의를 위해 환경-평화 연계의 이론적 지형을 검토하는 데 초점을 맞춤

-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환경을 뜻하는 '그린', 탈분단, 탈냉전을 뜻하는 '데탕트'의 결합으로서 '그린 데탕트' 구상과 관련된 이론적 지형을 파악하기 위해서 '환경-평화 연계'(environment-peace nexus)와 관련된 전제조건, 메커니즘, 발전방향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을 비판적으로 검토

- 환경-평화 연계와 관련된 다양한 문법에 대한 파악을 바탕으로 한반도 사례에서 이를 구현할 데 대한 조건, 기제, 가능한 경로 등에 대한 논의를 확인함으로써 본 연구는 한반도 미래비전으로서 '그린 데탕트' 구상의 정책적 방향성, 의의를 밝히는 데 기여할 것임

- 환경과 평화를 연계하는 '그린 데탕트' 구상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기존의 평화구축 담론과 차별화된 특징을 가짐

  * 첫째, '그린 데탕트' 구상은 국가 중심적, 군사 중심적 국제정치, 안보연구 흐름에서 벗어나 '비전통안보' 이슈에 해당하는 환경의 영역에서 관심을 가짐

13 추장민 외 2013; 손기웅 외 2014; 손기웅 외 2015; 조한범 외 2016; 김재한 2014; 이성우 2014; 박소영 2015.

14 고상두 2014; 고상두 2020; 이재승 외 2014.

* 둘째, '그린 데탕트' 구상은 환경 협력을 통한 기존의 냉전적 폭력, 갈등의 구조적 전환을 상상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비전통안보 영역에서 전통안보 영역으로 영역별 경계를 뛰어넘는 '확산'(spillover)을 전제함

- 아래에서는 두 가지 성격과 관련해 환경안보(environmental security), 환경적 평화구축(environmental peacebuilding) 등 이론적 논의를 검토함으로써 '그린 데탕트' 구상에 내재한 이론적 쟁점을 확인하는 한편 환경협력을 통한 평화구축의 실현가능 경로를 위한 전제조건, 단계, 메커니즘 등을 파악할 것임

1. 환경안보: 비전통안보 이슈로서 환경의 안보화

◦ 여기서는 환경-평화 연계에 대한 논의가 환경과 같이 기존에 안보 영역으로 고려되지 않았던 비정치적 이슈의 시급성, 중요성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환경안보 개념을 살펴봄

◦ 환경안보 개념은 생태계 다양성과 관련된 위협 분석, 국가-중심적 접근, 인간-중심적 접근 등과 관련된 광범한 연구들을 도출함

- 환경안보 개념은 환경-평화의 연계에 대한 광범한 측면을 다루며 안보를 담당하는 군의 환경안보적 역할에 대한 논의, 환경 문제로 인한 갈등, 분쟁 발생 연구, 인간안보로서 환경안보에 대한 접근, 평화구축 경로에 대한 연구들을 포괄함[15]

- 국제정치학계에서 환경안보 개념은 1980년대 탈냉전 국면에서 국가안보의 주요 영역으로 환경 이슈를 포함하는 재구성이 필요하다는 지적 속에서 제기됨

  * 1983년 리처드 울만(Richard Ullman)은 원자재 부족, 자연재해 등을 포함하는 국가안보 재정의를 시도하며 환경적 변화의 위협에 대한 대중적 인식의 중요성을 지적[16]

  * 초기 환경적 위협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논자들은 인간안보의 문제의식과 상통하면서도 실효성의 측면에서 국가 중심의 전통안보 측면에서 환경안보를 제기[17]

- 군의 환경안보적 사명, '군의 녹색화'(greening the military) 접근은 탈냉전 국제환경 변화로 기존의 양극 대립 하 안보위협이 사라진 맥락에서 군의 새로운 역할 재정의 과정에서 부상

  * 전쟁 국면에서 벌어지는 환경적 파괴에 대한 규범적 비판 논의가 부상하는 한편으로,[18]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 환경보호, 초국적 위험감소에 적극적 역할을 담당하는 군의 혁신에 대한 논의들이 제기됨

15 Floyd 2008; Ide et al. 2021; Ide 2019.
16 Ullman 1983.
17 Floyd 2008, p.52.
18 Westing 1989; Deibert 1996.

* 미 국방부를 중심으로 한 군의 환경안보 전략은 국제질서 변화에 따른 새로운 '존재이유'(raisons d'être), 예산의 확보를 정당화

- 환경 분쟁(environmental conflict)에 집중하는 연구들은 주로 자원의 배분 관점에서 분쟁해결, 방지에 대한 논의를 전개

* 대표적으로 토론토 학파는 자원 결핍, 파괴가 갈등, 분쟁의 격화로 이어진다고 주장[19]

* 반대로 자원의 풍족함이 결과적으로 내전 상황을 도출한다는 "꿀벌 단지"(honey pot) 가설이 존재[20]

* 환경적 측면 자체가 아닌 해당 사회의 정치경제적 관계, 자연자원에 대한 접근, 통제 메커니즘에 주목하는 정치생태학 연구들도 존재[21]

- 한편 인간안보로서 환경안보에 대한 접근은 국가중심적 관점에서 벗어나 생태계 상호의존, 인권, 세계화의 영향, 글로벌 북반부-남반부 간 불평등에 대한 문제제기를 펼침[22]

* 인간안보 개념은 탈냉전 이후 국가주권 성격에 대한 논쟁, 인권 인식의 향상, 개발협력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제기된 매우 광범한 성격의 문제제기

* △안보제공자로서의 국가의 역할에 대한 회의 및 비판에 따른 국가주권에 대한 도전, △저개발국, 개도국만이 아니라 선진국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포함할 뿐 아니라 △기존의 안보개념에 포괄되지 않던 삶의 질, 인권의 전반적 영역을 포함하는 포괄성을 보임

* 인간안보의 하위범주로서 환경안보는 폭력, 군사적 갈등의 측면보다 지속가능한 발전, 개별 인간과 공동체의 일상의 관점에서 정의됨[23]

* 환경 변화에 따른 안보불안은 빈곤 수준에 따라 전혀 다르게 경험되며 실제 환경 파괴에 가장 덜 기여한 이들이 글로벌 환경변화에 가장 즉각적 영향을 받는 불평등 존재[24]

- 더불어 환경 문제로부터의 평화구축 가능성을 타진하는 연구들은 환경파괴가 환경협력, 나아가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다양한 사례 및 정책제언을 제공

* 공통의 환경문제에 따른 초국적 자원관리, 환경보호 정책 실행이 분쟁해결에 기여하거나 환경문제를 둘러싼 당사자간 대화 노력이 다른 영역의 협력으로 확산되는 사례,[25] 지속가능발전에 중요한 수자원 등 환경부문의 협력이 평화의 제도화에 필수적 역할을 한다는 주장들이 여기에 해당[26]

19 Homer-Dixon 1999.
20 De Soysa 2020.
21 Peluso and Watts 2003.
22 Dalby 2009.
23 Barnett 2001, p.129; Floyd 2008, p.57.
24 Elliott 2015, p.13.
25 Ali 2001.
26 Carius 2006.

- 최근 기후위기 주제와 관련해 환경안보 논의가 팽창하면서 환경안보 연구에서는 인간에 대한 환경적 위협의 영향에 대한 국가단위의 전략, 인간안보 측면 대응과 함께 생태계 다양성의 보존, '인간 너머의 세계'(more-than-human world)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지구를 탐색하는 확장적 논의들도 존재[27]

◦ 환경안보 개념의 진화 과정에서 1990년대 인간안보 맥락에서 정의된 환경안보 개념을 강조하는 방향과 환경과 같은 비전통안보적 이슈가 국가안보의 하위범주로 격상하는 실용적 측면을 강조하는 방향이 대립

- 1994년 유엔개발계획의 인간안보 개념에서 인간안보의 7가지 영역의 하나로 제기된 환경안보 연구는 2000년대 이후 국제안보담론들의 전개과정에서 인간 중심적 접근보다는 국가안보의 측면에 기우는 양상이 관찰됨

- 특히 기후변화 관련 환경안보 논의에서 국가주권의 차원에서 안보적 위협을 정의하거나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안보이해 관점에 초점을 맞추거나 기후위기에 가장 취약성을 보이는 이들을 위협, 불안정의 근원으로 '타자화'하는 등 개별 인간의 안보적 관점과는 거리를 둔 '안보화' 과정이 나타난다는 비판 존재[28]

  * 7개 하위 영역 중에서도 환경 영역은 인간안보 담론 내에서 인간 중심적 접근보다 국가, 지역에 대한 비전통안보 위협으로서 접근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남[29]

- 기후변화와 같은 이슈를 비전통안보 관점에서 '안보화'하는 전술적 접근은 사실상 이렇게 정의된 안보위협에 대한 방어 차원에 정책적 초점을 한정시키고 인간안보적 불안정 뿐 아니라 자연생태계의 불안정을 포괄하는 광범한 대응에는 소극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음[30]

  * 전통안보적 관점의 위협(threat), 위험(risk)이 아니라 인간안보적 측면에서 취약성(vulnerability)에 초점을 맞춰 기후변화의 글로벌 영향을 바라본다면, 환경 파괴는 비안보, 불안정의 근원이 아니라 오히려 결과로 볼 수 있음

  * 인간안보적 시각은 안보위협으로 정의된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전통안보적 방어가 아니라 취약성에 대한 복원력, 적응역량 강화의 관점에서 환경안보를 주장함으로써 인간 중심적이고 포용적, 균형적 거버넌스를 건설하는 데 기여 가능[31]

27 Wilson et al. 444; Morrissey 2021, 19-20; Hwang 2020.
28 Elliott 2015, p.14, 17.
29 Breslin and Christou 2015, p.8.
30 Elliott 2015, p.17.
31 Elliott 2015, pp.20-21.

2. 환경협력을 통한 평화 만들기, 아래로부터의 평화 만들기

◦ 환경적 평화구축의 개념은 비전통안보 영역의 환경협력으로부터 평화구축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평화구축 논의와 차별화된 인과관계, 메커니즘, 정책 로드맵을 포괄함

- 1970년대 요한 갈퉁(Johan Galtung)의 직접적 폭력의 부재를 의미하는 '소극적 평화'와 구조적 폭력의 극복을 의미하는 '적극적 평화'의 분류로부터 발전해온 평화학은 물리적 갈등, 분쟁 방지, 평화유지, 평화협정의 문제뿐 아니라 포스트 협정 평화구축, 즉 고질적 분쟁을 경험한 사회 전반의 구조적, 문화적 전환에 대한 연구, 실천, 교육으로 진화됨[32]

- 지속가능한 평화정착의 문제는 분쟁당사자인 국가행위자뿐 아니라 국제기구, 지역기구부터 국내외 NGO, 시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행위자들의 개입, 분쟁해결, 평화과정의 주요 단계, 수준에 따라 다양한 방법, 수단의 강구, 갈등/평화의 지역적,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 따른 다양한 인식론적, 존재론적 고려 등을 포함함

[표 1] 갈등 해결의 유형 (Brunk 2012, p.22)

<table>
<tr><th rowspan="2"></th><th colspan="2">갈등 해결</th><th colspan="2">갈등 관리</th><th colspan="2">갈등 전환</th></tr>
<tr><th>비강제적</th><th>강제적</th><th>비강제적</th><th>강제적</th><th>비강제적</th><th>강제적</th></tr>
<tr><td>평화의 정의</td><td colspan="2">갈등 종식</td><td colspan="2">파괴적 갈등의 통제
"소극적 평화"</td><td colspan="2">정의, 권력의 균형
"적극적 평화"</td></tr>
<tr><td rowspan="4">중기 목표</td><td rowspan="4">갈등 회피
문제 해결
항복의 교환</td><td rowspan="4">적의 괴멸 혹은 패퇴
승리</td><td colspan="2">규범 체계의 확립</td><td rowspan="2">약자의 강화</td><td rowspan="2">강자의 약화</td></tr>
<tr><td>제재</td><td>제재x</td></tr>
<tr><td colspan="2">고정관념, 편견, 배제,
폭력 회피

타협</td><td colspan="2" rowspan="2">체제 변화
조직 권력에 대한 대립</td></tr>
<tr><td>권력공유</td><td>권력유지</td></tr>
<tr><td>사용 수단</td><td>논쟁</td><td>분쟁
협박
협상(+위협)
무력사용</td><td>논쟁
타협
협상(+양보)
중재
의례(주사위, 동전던지기)
자발적 조정</td><td>협상(+위협)
경찰력
(법 집행)
투표 강제
강제적 조정</td><td>교육
도덕적 설득
시위
각각 분리된 규범
비협조</td><td>파업
보이콧
분쟁
사보타지
위협</td></tr>
<tr><td colspan="4"></td><td>단식투쟁</td><td></td></tr>
<tr><td colspan="4"></td><td>타협
협상(+양보)</td><td>무력
타협
협상(+위협)</td></tr>
</table>

32 Galtung 1976; Galtung 1996; Webel and Johansen 2012.

- 탈냉전 이후 비전통안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기후변화와 같은 인류 공동의 위험에 대한 글로벌 인식이 증대됨에 따라 평화과정, 평화구축에서 환경 문제, 환경-평화 연계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주목되는 상황

- 환경-평화 연계에 대한 광범한 연구 중에서도 환경적 평화구축(environmental peacebuilding, EPB) 개념은 지방, 국가, 초국가 등 다양한 스케일을 넘나드는 환경 이슈의 성격으로부터 공동대응을 통해 기존의 갈등, 분쟁의 평화로의 전환을 도출함

  * 환경적 평화구축은 환경 문제의 관리가 분쟁 방지, 완화, 해결 및 복구를 지지하는 다양한 접근, 경로를 의미[33]

  * 환경적 평화구축은 (현재 혹은 기존의) 분쟁당사자들이 공유하는 환경적 도전이 지속가능한 협력과 평화를 건설하는 기회로 전환되는 과정으로 정의[34]

- 환경적 평화구축 논의는 분쟁당사자들 간 지속가능한 평화 건설과 관련해 비군사적 이슈인 환경협력으로부터 평화의 제도화 경로를 설정한다는 점에서 평화 자체의 개념정의, 인과관계, 제도 · 정책적 기제 등에 대한 차별화된 관점을 제공함[35]

  * 환경적 평화구축은 평화구축 연구 내에서도 최신의 대안적 이론, 경험적 연구가 팽창하고 있는 주제로,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이론적 혁신, 정책 경로의 상상과 직결된 연구 · 실천 영역

◦ 환경적 평화구축의 가능 경로는 초기 조건, 메커니즘, 결과의 차원에서 고려가능한 다양한 변수의 조합들에 따라 설정 가능

- △상대적으로 안정된 접촉과 낮은 단계의 기술적 환경협력으로부터 △보다 진전된 분쟁당사자 간 환경협력에 따른 상호작용의 중립지대 및 가치 공유의 단계, 마지막으로 △권력의 불균등을 완화하고 환경 영역의 공유재적 관리, 집합행동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과 평화를 이끌어내는 단계를 상정할 수 있음[36]

  a) 초기조건: 두 가지 맥락, 즉 환경적, 사회 · 정치적 맥락을 함께 고려

  * 생태물리학적 환경, 자연자원 측면에서 협력의 동기

  * 사회정치적 환경 관련 상호 이해, 공유 가치 혹은 권력 불균등의 완화

  * 외부행위자 및 이해(기부 행위자, 국제 비/정부기구)의 존재 영향도 추가 변수

  b) 메커니즘: 협력의 과정과 관련해 분쟁당사자 간 행위 유형, 이행의 유형을 고려

33 Ide et al. 2021, pp.2-3.
34 Dresse et al. 2019, p.104.
35 황준서 2019; McDonald 2018; Verhoeven 2014; Ide et al. 2021, p.2.
36 Dresse et al. 2019.

* 행위 및 이행 유형으로 기술적 협력에 따른 행위 조정, 당사자간 직접 접촉 및 대화 · 협상, 공유재 자원 관리를 위한 집합행동 존재

* 조약, 규범, 공식 규칙 등의 형태를 갖는 제도의 정착은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자리잡는 데 기여

c) 결과: 협력에 따른 기대효과 및 간접적 효과를 고려

* 기대 효과로는 환경적 문제, 불확실성, 자원 불균등의 감소, 협력의 관습을 형성하고 신뢰를 건설하는 것, 자원의 접근 및 배분과 관련된 불균등 해소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평화의 초석을 마련하는 것

* 지속가능한 평화구축이란 모든 참가자들이 승인한 집합행동, 모든 관계자들이 참여한 공정한 자원배분을 통해서 가능할 것

* 환경적 협력의 간접효과로는 협력의 선순환 구조를 통해 낮은 단계의 기술협력으로부터 초경계 대화로 나아가고('접촉 가설'), 집합적 신뢰 축적을 통해 사회정치적 경계를 넘어서서 집합행동으로 진전하는 것, 자원배분의 균등한 배분을 통해 사회 · 환경적 정의를 실현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것

* 이러한 과정에 금전, 환경, 정치적 비용이 동반가능하다는 점 지적

- 환경적 평화구축의 경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될 수 있으며, 이들 경로는 실제 구현과정에서는 중첩되거나 일종의 '이상형'에 미치지 않을 수 있음

a) 기술적 환경적 평화구축(technical EPB)은 자원 결핍의 환경적 맥락에서 협력을 위한 최소한의 상호이익이 존재하는 사회적 맥락에서, 낮은 단계의 기술적 협력에 기반해 상호 행위조정 과정을 통해 환경 문제를 감소시키는 한편 접촉을 증대하는 결과를 이끔

b) 복원적 환경적 평화구축(restorative EPB)은 환경적 상호의존의 맥락, 상호 공유가치가 존재하는 사회적 맥락에서, 상호작용을 위한 중립지대에 기반해 대화 · 협상 과정을 통해 신뢰 구축을 통한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한편 공유하는 정체성 형성에 기여

c) 지속가능한 환경적 평화구축(sustainable EPB)은 환경적 지속가능성 관련 문제상황 및 분쟁당사자간 권력 불균등이 개선된 맥락에서, 공유재 관리 방식에 기반한 집합행동을 통해 궁극적으로 불균등한 자원 배분의 문제를 감소시키는 한편 지속가능한 발전 및 평화를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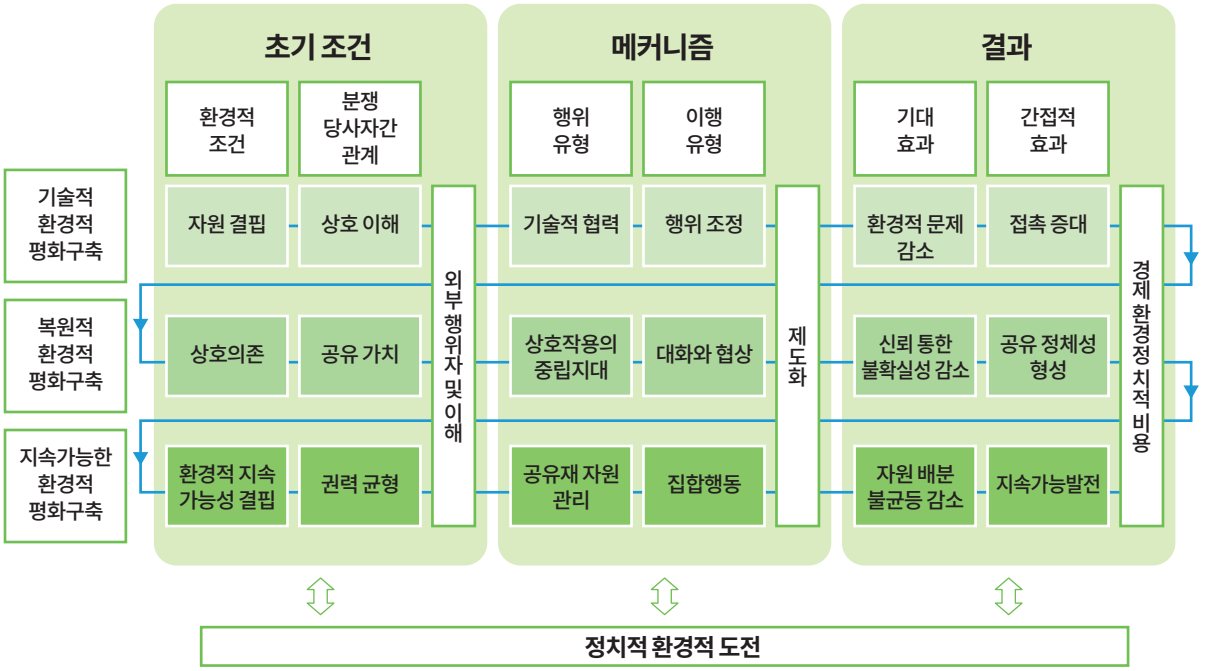
- 상기한 환경적 평화구축의 경로는 확산 과정(spillover)을 통해 피드백 순환(feedback loop)의 구조를 가짐

* 즉 외부적 행위자 및 이해, 제도화, 경제 · 환경 · 정치적 비용의 변수에 따라 협력의 범위와 심도가 높아지는 진전이 가능할 수도, 혹은 불신의 심화, 단계의 퇴행이 가능할 수도 있음

* 기술적 환경적 평화구축으로부터 지속가능한 환경적 평화구축으로의 심화를 위한 확산은 △분쟁의 사회정치적 경계를 넘어서 환경협력을 위한 집합행동, 제도화를 도출하는 문제, △환경을 넘어서 경제, 정의, 건강 등 다른 영역으로 '평화적 배당금'(peace dividend)을 확대하는 초경계 협력을 진전시키는 문제,

△환경협력을 위한 '하위 정치'(low politics)로부터 '상위 정치'(high politics)로, 풀뿌리 시민사회, 중간 정부, 고위급 지도부에 이르는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다층적 거버넌스를 구현하는 문제와 연관

[그림 1] 환경적 평화구축의 세 가지 경로 (Dresse et al. 2019, p.106)



◦ 최근의 평화구축 논의는 접경, 지역, 공간 스케일에 새롭게 주목하며 '아래로부터의' 평화 담론 · 실천을 강조함

- 최근 평화구축 연구는 기존의 이론적, 실천적 반성으로부터 중앙이 아닌 지역, 시민사회의 구체적, 문화적 맥락에 대한 존중, 아래로부터의 평화구축을 디자인하기 위한 연구 및 실천을 전개

- 이러한 평화구축의 '지역적 전회'(local turn)가 지역, 시민사회의 관습, 경험, 담론을 포괄하는, 상향식 평화구축의 설계 및 이행을 주장해온 기반 위에서, [37] 최근 '공간적 전회'(spatial turn)는 이러한 다양한 지역 수준, 공간, 국제정치적 스케일이라는 것이 단순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으로 구성되는 과정에 주목[38]

  * '공간적 전회'는 분쟁/평화 동학에서 행위자, 아이디어가 스케일(사적 공간에서 지방, 지역, 글로벌 차원에 이르기까지)을 넘나들며 이동, 변화하고 어떻게 다양한 단위, 행위자, 정체성이 공간과 장소를 구성하고 그에 따라 구성되는지를 탐색

37 Mac Ginty 2015; Mac Ginty and Richmond 2013; Paffenholz 2015.

38 Brigg and George 2020; Ide 2017.

* 이러한 관점은 전쟁 혹은 평화의 '경관'의 복합적 성격을 이해하고 공간을 인간의 다양한 행위, 상호작용의 구현을 통해 구성되는 것으로서 물질적인 동시에 상징적 차원에서 파악하도록 함

- 환경적 평화구축의 개념과 실천의 확장성과 관련해 최근의 '지역적', '공간적 전회'의 문제의식을 결합해 발전시키는 것은 유의미

* 특히 로컬, 글로벌의 '스케일'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유동적이며 상대적 의미에서 어떻게 사회적으로 구성되는가를 살핌으로써 복합적이고 상호적인 관계의 배열로 공간을 파악하는 '공간적 전회'는 어떻게 환경, 정치, 경제 등 다양한 영역을 넘나드는 한편 초경계적 협력을 아래로부터 구성할 것인가 하는 환경적 평화구축을 구현하는 데 매우 중요한 통찰을 제공

* 여러 스케일, 수준이 상호관계를 맺고 상호침투하는가, 그리고 이러한 공간을 개별 인간, 공동체, 지역 사회가 어떻게 경험, 이해, 구성하는가 그 다양성을 밝힘으로써 '공간적 전회'는 '지역적 전회'의 본질을 더 드러내는 한편,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다양한 비정치적 공간으로서 환경, 경제, 사회로부터 협력을 확산하는 환경적 평화구축에 있어 맥락화, 복수적 공간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 데 기여

- 결국 해당 분쟁 사회에서 어떻게 갈등의 구조를 전환할 것인가 하는 평화구축 과정에서, 지속가능한 평화란 그 사회의 구체적 맥락성에 대한 파악에 기반한 전환이 필수적

- 나아가 이러한 맥락, 공간이 물질적 성격뿐 아니라 끊임없이 사회적 담론, 상호작용, 권력의 동학에 따라 구성되는 상징적 성격을 갖는 한, 이러한 공간, 환경 차원의 협력으로부터 정치, 경제, 사회적 협력을 확산하는 환경적 평화구축은 협의주의적 과정, 아래로부터의 참여, 숙의과정이 중요

III. 한반도 '그린 데탕트'를 향하여

◦ 본 연구는 신정부의 한반도 공약에 해당하는 '그린 데탕트' 구상의 향후 정책방향을 구체화, 풍부화하기 위한 개념적 토대로 '환경-평화 연계'와 관련된 이론적 지형을 검토함

- '그린 데탕트' 구상이 기존 평화구축의 방법, 경로와 일련의 차별성을 가지는 새로운 정책대안으로서 한반도의 평화, 통합의 중장기적 미래비전으로 자리잡기 위해 현 단계에서 필수적인 과제는 해당 개념의 정의, 방향성, 실행 메커니즘 및 로드맵을 구성하기 위한 이론적 토대를 풍부화하는 것

* 과거 및 신정부의 공약으로서 '그린 데탕트'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는 개념정의 및 전제조건, 실현방법 등과 관련해 이론적 근거가 충분히 제공되었다기보다 정책구상으로서 다양한 구체적 제언들의 패키지, 혹은 한반도 통합 미래의 이상적 단계에 부합하는 속성 및 조건들을 밝히는 논의들이 존재

◦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환경안보, 환경적 평화구축, 평화구축의 '공간적 전회'의 이론적 검토에 기반해, 한반도 '그린 데탕트' 구상 실현을 위한 정책적 방향설정과 관련해 다음을 제언함

- 첫째, '그린 데탕트' 구상이 한반도 공동의 중장기 미래비전으로서 실현가능한 정책구상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있어, 필수적 조건으로서 남북한은 공동의 환경적 도전을 두고 현재의 정치 · 군사 · 경제 · 사회적 경계를 넘어서는 관계적 '전환'을 시도해야 함

  * 정치 · 군사상 갈등으로부터 환경문제에 대한 공동의 협력으로 경계를 넘어서는 행위는 최소한의 접촉을 통한 기술적 협력부터 접촉의 안정에 기반한 상호작용의 중립적 공간 확보, 나아가 공유재 자원 관리를 위한 공동의 위임적 제도의 창출까지 다양할 수 있음

  * 우선 이러한 접점을 만들어내는 시작에 해당하는 다양한 시도가 꾸준히 이뤄져야 하며 이러한 시도는 현재와 같은 교착 국면에서는 언제든 어느 일방의 선제적 양보로 보일 수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시작 단계의 시도들이 축적되어 '접촉', '기술적 협력'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다음 단계들로 '스케일업' 하는 확산과정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환경적 평화구축의 이론이 확인해주는 바임

  * 재해재난, 기후변화 등 다양한 공동의 환경적 도전에 대해서 남북한 간 최소한의 수준의 접촉, 기술적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환경이슈 관련 과학자, 전문가 집단을 아우르는 '인식공동체'의 사회적 담론 등을 바탕으로 관계적 전환을 위한 여론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수반될 수 있음

- 둘째, 비정치적 환경 영역의 의제로부터 다른 영역으로의 협력을 확산함으로써 평화를 정착한다는 환경적 평화구축의 본질적 특성상, '하위 정치'의 일상적 관심, 지역 사회 공동체의 담론 · 실천들에 기반한 '아래로부터의' 평화구축의 접근을 확장해야 함

  * 환경 문제와 관련된 최소한의 기술적 협력, 접촉의 확대를 통해 협력의 진전에 대한 가치의 공유, 상호작용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남북한은 DMZ 접경지역 등 환경적 의제에 집중가능한 특정 지대를 설정하는 한편, 이러한 지역, 시민사회 등 다양한 행위자들의 경험, 담론을 활용해 평화구축을 위한 민주적 숙의, 협의주의적 과정을 강화해야 함

  * 주의할 것은 DMZ 접경지역 등 환경협력을 위한 지역, 공간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지역, 공간을 고정적인 물리적 단위로 접근하기보다 한반도의 역사적, 정치적 맥락에서 이러한 지역, 공간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구성되는가에 민감해야 한다는 점

  * '아래로부터의' 환경적 평화구축은 지역적 이해를 고정적으로 보고 이를 청취, 반영하는 문제가 아니라 변화하는 환경 이슈, 정치 · 사회적 맥락에 따라 지역, 공동체의 경계가 어떻게 재/구성되는가 그 동학에 관심을 가짐

◦ 국회는 '그린 데탕트', 환경적 평화구축 의제와 관련해, 우리 사회의 환경, 경제, 사회, 정치적 담론을 포괄하고 공론을 가능하게 하는 장으로서 궁극적으로 환경적 평화구축을 위한 다층적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음

- 환경적 평화구축을 포함해 평화구축은 궁극적으로 분쟁, 갈등을 경험했거나 지속하고 있는 사회의 구성원들이 중장기적 미래에는 과거, 현재의 갈등을 파생하는 구조적 모순을 전환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평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적 환경을 확보하는 과정

- 국회는 민의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과거, 현재의 구조적 갈등을 미래에 반복하지 않기 위한 화해, 협력을 위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지속함으로써 지역 사회로부터 한반도, 동북아 차원의 평화정착으로 나아갈 수 있는 협의의 과정을 제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참고문헌

강택구 외. 2016.『통일 대비 북한지역 자연재해 대응을 위한 자료 구축과 남북협력 방안 연구(I)』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강택구 외. 2021.『북한 자연재해 자료 구축과 협력 전략』. KEI 사업보고서 2021-09-03.

고상두. 2014. "냉전 시대 그린데탕트의 경험과 남북한 환경협력에 대한 시사점,"『국가안보와 전략』, 14권 1호.

고상두. 2020. "발트해 환경협력의 성공 요인: 탈국경적 인식공동체의 역할,"『통일정책연구』, 29권 2호.

김경숙 · 박보라. 2021. "코로나19 팬데믹과 동아시아 보건 거버넌스 구축 방향." INSS 전략보고 113호.

김기섭 외. 2020. "SDGs 측면에서 본 남북한의 이행실태 비교연구."『국제정치연구 23권 1호.

김상배. 2016. "신흥안보와 메타 거버넌스,"『한국정치학회보』, 50권 1호.

김상배 · 신범식 편. 2017.『한반도 신흥안보의 세계정치』. 서울: 사회평론.

김상배 · 신범식 편. 2019.『동북아 신흥안보 거버넌스』. 서울: 사회평론.

김수경 외. 2019.『북한인권백서 2019』. 통일연구원.

김재한. 2014. "그린데탕트의 개념과 추진전략,"『국가안보와 전략』, 14권 3호.

김태경. 2021. "포스트 팬데믹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재난위험경감 협력방향." 「국제전략 Foresight」, 제4호, 국회미래연구원.

김태균. 2017. "북한개발협력을 위한 이론적 소고: 국제사회론을 중심으로."『국가전략』23권 2호.

김태균. 2019. "국제개발 조건으로서의 '평화': 대북원조의 이중적 딜레마와 북한개발협력의 평화-개발 연계."『국제개발협력연구』, 11권 3호.

김태균. 2020a.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와 발전 이데올로기: 북한의 자발적국가리뷰(VNR) 준비과정을 중심으로," 박지연 손혁상 외,『북한개발협력과 지속가능발전목표』서울: 오름.

김태균. 2020b. "분쟁 이후 평화구축의 성공요인에 관한 전략적 평화론: 평화조건과 양자승인의 이중주."『문화와정치』7권 2호.

김형수 외. 2021.『남북 접경지역 재해 · 재난 대응력 제고를 위한 '방재전이공간(TSDP)' 조성방안 기본연구』. KINU 연구총서 2021-18.

김호홍, 김일기. 2020. 「김정은 시대 신안보 정책과 남북한 협력 방향: 감염병, 환경, 자연재해를 중심으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호홍 · 김일기. 2021. “북한의 코로나19 대응: 인식, 체계, 형태.” INSS 연구보고서 2021-08.

김호홍. 2018. “신안보 위협, 남북이 함께 대응하자.” INSS 이슈브리프.

김호홍 · 오일석. 2019. “신안보 분야 남북협력 추진 전략.” INSS 전략보고 30호.

나용우 외. 2021.『남북 재해재난 공동관리시스템 구축 필요성과 추진방향』. KINU 연구총서 2021-17.

나용우. 2022.『’남북 그린데탕트‘를 통한 지속가능한 평화』. Online Series CO22-18. 통일연구원.

도경옥 외. 2016.『북한인권백서 2016』. 통일연구원.

도경옥 외. 2017.『북한인권백서 2017』. 통일연구원.

명수정 외. 2013.『한반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남북협력 기반 구축 연구 III』한국환경정책평가원.

명수정. 2017.『북한의 환경인프라 조성을 위한 환경협력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문경연 외. 2018. “대북지원 20년: 비판적 고찰을 통한 신대북지원 패러다임 모색.”『국제관계연구』 23권 1호.

문경연 외. 2021. “발전이 인권과 평화에 미치는 상관관계에 대한 이론적 탐구.”『평화학연구』 22권 1호.

문경연. 2012. “대북지원의 인간안보적 재해석.”『북한연구학회보』 16권 2호.

문경연·정구연. 2018.『유네스코와 북한』서울: 유네스코.

민병원. 2012. “안보담론과 국제정치 - 안보개념의 역사적 변화를 중심으로.”『평화연구』, 20권 2호.

박보라. 2018. “국제테러발생 영향요인과 한국에의 시사점.” INSS 연구보고서 2018-17.

박보라. 2019. “국제사회의 감염병 대응동향.” INSS 전략보고 33호.

박소영. 2015. “그린데탕트와 남북산림협력의 의미와 가능성 연구.”『동북아연구』. 30권 1호.

박지연 외. 2016.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패러다임과 북한개발협력: 새천년개발목표(MDGs)와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중심으로.”『아태연구』 23권 2호.

박지연 · 손혁상 편. 2020.『북한개발협력과 지속가능발전목표』. 서울: 오름.

손기웅 외. 2014.『‘그린 데탕트’ 실천전략: 환경공동체 형성과 접경지역-DMZ 평화생태적 이용방안』 통일연구원.

손기웅 외. 2015.『‘그린 데탕트’ 실천전략: 환경공동체 및 경제공동체 동시 형성방안』 통일연구원.

손혁상 · 김선주. 2019. “북한개발협력을 위한 취약국 지원 전략 유용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 국제정치논총 59권 1호.

오경섭 외. 2021.『북한인권백서 2021』. 통일연구원.

오일석. 2020.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보건안보: 코로나19 대응을 중심으로.” INSS 연구보고서.

오일석 · 장세호. 2022. "'동북아 방역협력 제도화'를 위한 실천과제 모색." INSS 연구보고서 2021-12.

이규창 외. 2020a.『감염병 공동대응을 위한 남북인도협력』. 정책연구시리즈 2020-01.

이규창 외. 2020b.『북한인권백서 2020』. 통일연구원.

이대훈 외. 2020.『유엔인권메커니즘과 SDGs를 통한 북한인권 개선 협력방안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이성우. 2014. "그린데탕트의 개념과 추진방안," JPI Research Series, 31호.

이신화. 2006. "세계정치와 동아시아 안보: 동아시아 인간안보와 글로벌 거버넌스,"『세계정치』, 5권.

이재승 외. 2014. "환경협력을 통한 평화구축의 이론과 사례: 한반도에의 적용에 대한 고찰,"『한국정치연구』, 23집 3호.

이재영 외. 2021.『동아시아 평화 · 번영을 위한 비전통 안보 협력』. KINU 연구총서 21-08.

이혜정·박지범. 2013. "인간안보: 국제규범의 창안, 변형과 확산."『국제지역연구』, 22권 1호.

인도협력연구실 편. 2019.『제3세대 인권과 북한』. 북한인권정책연구 제7권. 통일연구원.

임예준·이규창. 2017.『북한 재난협력 방안과 과제』, 서울: 통일연구원.

조한범 외. 2016.『「그린데탕트」실천전략: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사업을 중심으로』 KINU 연구총서 16-14.

조한범 외. 2020.『신한반도체제 추진 종합연구(1): 신한반도체제의 평화협력공동체 형성』. 서울: 통일연구원.

최규빈. 2020.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북한연구학회보』, 24권 1호.

추장민 외. 2013.『한반도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동호 외. 2018.『북한인권백서 2018』. 통일연구원.

홍석훈 외. 2019.『남북한 인도협력 방안과 과제: 인도 · 개발 · 평화의 트리플 넥서스』. KINU 연구총서 19-11.

홍석훈 외. 2020.『평화-인권-발전의 트라이앵글: 이론적 검토와 분석틀』. KINU 연구총서 2020-04.

황수환 외. 2021.『통일준비를 위한 북한의 SDGs 소개와 지표분석』. KINU 연구총서 21-16.

황준서. 2019. "분쟁지역 환경협력의 유형과 안정적인 남북한 접경지대 환경협력을 위한 촉진요소 연구: 북아일랜드 사례를 중심으로."『통일과 평화』. 11집 2호.

MBC통일방송연구소. 2022. TV로 본 북한 텔레비죤-북, 제115호(6월 9일).

YTN. 2022. “북한, 신규발열자 3만 명대… 누적 450만 명,” 2022.6.14. https://www.ytn.co.kr/_ln/0101_202206140839400688

Acharya, Amitav. 2001. “Human Security: East versus West.” International Affairs, 56(3).

Ali, A. “A Siachen Peace Park: The Solution to Half-Century of International Conflict.” Mountain Research and Development, 22(4).

Barnett, J. 2001. The Meaning of Environmental Security. London: Zed.

Breslin, Shaun, and George Christou. 2015. “Has the Human Security Agenda Come of Age? Definitions, Discourses and Debates.” Contemporary Politics, 21(1).

Brigg, Morgan, and Nicole George, “Emplacing the Spatial Turn in Peace and Conflict Studies,” Cooperation and Conflict, 55(4).

Brunk, Conrad. 2012. “Shaping a Vision: The Nature of Peace and Conflict Studies,” In Webel, Charles and Jorgen Johansen eds. Peace and Conflict Studies: A Reader. Routledge.

Carius, A. 2006. Environmental Peacebuilding: Conditions for Success. Environmental Change and Security Program Report 12. Washington DC: Woodrow Wilson Center 2006-07.

Cho, Eun Jeong, and Tae-Kyung Kim. 2021. “Characteristics of Disaster Risk Reduction Governance Under the Kim Jong Un Regime and Implications for Policies toward North Korea,” Global NK Zoom & Connect, October 28.

Conca, K. and G.D. Dabelko, eds. 2002. Environmental Peacemaking. Washington: Woodrow Wilson Center Press.

Conca, K., A. Carius and G.D. Dabelko. 2005. “Building Peace through Environmental Cooperation.” In M. Renner H. French and E. Assadouria, eds. State of the World 2005: A World Watch Institute Report on Progress Toward a Sustainable Society. New York: W.W. Norton and Company.

Dalby, S. 2009. Security and environmental change. Cambridge: Polity.

De Soysa, I. 2020. ‘‘The Resource Curse: Are Civil Wars Driven by Rapacity or Paucity?’’ In M. Berdal and D. Malone, eds. Greed & Grievance: Economic Agendas in Civil War. Boulder: Lynne Rienner.

Deibert, R. J. 1996. From Deep Black to Green? Military Monitoring of the Environment. Environmental Change and Security Program Report no. 2. Washington DC: Woodrow Wilson Center.

Dresse, Anais, and Itay Fischhendler, Jonas Ostergarrd Nielson, and Dimitrios Zikos. 2019. “Environmental Peacebuilding: Towards a Theoretical Framework,” Cooperation and Conflict, 54(1).

Elliott, Lorraine. 2015. “Human Security/Environmental Security.” Contemporary Politics, 21(1).

Floyd, Rita. “The Environmental Security Debate and its Significance for Climate Change.” The International Spectator, 43(3).

Galtung, Johan. 1976. “Three Approaches to Peace: Peacekeeping, Peacemaking and Peacebuilding.” In Peace, War and Defense: Essays in Peace Research II. Copenhagen: Christian Elders.

Galtung, Johan. 1996. Peace by peaceful means: Peace and conflict, development and civilization.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Oslo; Sage Publications, Inc.

Homer-Dixon, T. 1999. Environment, Scarcity, and Violenc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Hwang, Jin-Tae. 2020. “Theorizing the More-Than-Human State.” The Professional Geographer, 73(40).

Ide, Tobias, et al. 2021. “The Past and Future(s) of Environmental Peacebuilding.” International Affairs, 97(1).

Ide, Tobias. 2017. “Space, Discourse and Environmental Peacebuilding,” Third World Quarterly, 38(3).

Ide, Tobias. 2019. “The Impact of Environmenal Cooperation on Peacemaking: Definitions, Mechanisms, and Empirical Evidence.”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21(3).

Kaldor, Mary. 2007. New and Old Wars: Organized Violece in a Global Era. 2nd ed.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McDonald, Matt. 2018. “Climate Change and Security: Towards Ecological Security?,” International Theory, 10(2).

Mac Ginty, Roger, and Oliver P. Richmond. 2013. “The Local Turn in Peace Building: A Critical Agenda for Peace.” Third World Quarterly, 34(5).

Mac Ginty, Roger. 2015. “Where is the Local? Critical Localism and Peacebuilding.” Third World Quarterly. 36(5).

Paffenholz, Thania. “Unpacking the Local Turn in Peacebuilding: A Critical Assessment Towards an Agenda for Future Research.” Third World Quarterly, 36:5.

Paris, Roland. 2001. “Human security: Paradigm shift or hot air?,” International Security, 26(2).

Park, Jaeyoon, et al. 2020. “Illuminating Dark Fishing Fleets in North Korea,” Science Advances, July.

Peluso, N. L. and M. Watts. 2003. Violent Environments: Responses, Environmental Change and Security Project Report no. 9. Washington DC: Woodrow Wilson Center.

Song, Jiyoung. 2015. "Redefining Human Security for Vulnerable Migrants in East Asia." Journal of Human Security, 11(1).

Ullman, R. 1983. "Redefining Security," International Security, 8(1).

UNDP. 1994. Human Development Report 1994. New York an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Webel, Charles, and Jorgen Johansen, eds. 2012. Peace and Conflict Studies: A Reader. Routledge.

Westing, A.H. 1989. "The Military Sector vis-a-vis the Environment." Journal of Peace Research, 25(3).

Verhoeven, Harry. 2014. "Gardens of Eden or Hearts of Darkness? The Genealogy of Discourses on Environmental Insecurity and Climate Wars in Africa," Geopolitics, 19(4).

국제전략 Foresight 발간현황

vol	제목	작성자	발행일
1	미·중 경쟁 시대의 한국의 안보전략	유재광 (前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2020.9.24
2	뉴노멀과 한국의 대외 경제전략	유재광 (前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2020.11.5
3	미중기술패권경쟁과 중국의 강대국화 전략 - '기술혁신'과 '기술동맹' 경쟁을 중심으로	차정미 (거버넌스그룹 부연구위원)	2021.8.12
4	포스트 팬데믹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재난위험경감 협력방향	김태경 (거버넌스그룹 부연구위원)	2021.10.14
5	미래전쟁과 군사-기술의 연대 : 인공지능의 군사화와 민군융합	차정미 (거버넌스그룹 부연구위원)	2021.11.11
6	빅데이터(GDELT)를 통해 살펴본 국가 간 갈등의 변화	박성준 (거버넌스그룹 부연구위원)	2021.11.25
7	미중 기술패권경쟁에 대한 세계의 인식과 전략, 한국외교에의 함의와 의회의 역할 : "글로벌 혁신 선도국가(global innovation leader)" 비전	차정미 (국제전략연구센터장)	2022.2.14
8	국제질서의 변화와 우크라이나 사태의 지정학적 함의	박성준 (거버넌스그룹 부연구위원)	2022.4.25
9	'그린 데탕트': 환경협력을 통한 평화구축의 미래 탐색	김태경 (거버넌스그룹 부연구위원)	2022.6.20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

ISSN 2734-0686

• 이 자료는 **국회미래연구원 홈페이지**(www.nafi.re.kr) 및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미래연구원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